

# “장성의 미래 위해 KTX 장성역 정차 꼭 지켜내겠다”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유두석 장성군수

유두석(64) 장성군수는 민선 4기 장성군수로 1년3개월간 군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 부인에게 남은 민선 4기 임기를 맡기고 7년 만에 민선 6기 장성군수장으로 컴백한 탓인지 의욕이 넘쳤다.

유 군수는 특히 국토교통부 고위간부를 지낸 이력을 충분히 활용해 KTX 장성역 정차 12회 유지 공약을 최대한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TX는 장성역에 하루 12회 정차하지만 2015년 충북 오송~광주 송정간 신구간이 개통되면 장성역 경유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는 “장성역 정차가 없어지면 상권이 이동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존치가 녹록치 않지만 상무대 군인 수송 및 광주역과 연계 등의 명분을 내세워 현행 12회 정차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 ■ 3대 역점 정책

#### ① 활기찬 도·농 복합도시

-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 행복생활마을권 사업 유치
- 3차 LH국민임대아파트 추진

#### ② 당당한 복지 장성

- 경로당, 생활공동체로 운영
- 노인복지권, ‘효도권’으로 확대

#### ③ 친환경 부자 농촌

- 농업보조금 맞춤형 지원
- 축산농가 경쟁력 높이기
- 식품가공산업 육성

-민선 6기 군정 운영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너무 열악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많은 국비를 유치해 장성을 활기찬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앞으로 4년 동안 과거보다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초지일관 변치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결실의 열매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민화합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임기 내 추진할 역점시책 세 가지만 든다면.

▲먼저 살기좋은 활기찬 도·농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 장성은 대도시인 광주시에 인접하고 각종 기업유치가 활발해 새로운 도·농 복합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행복생활마을권 사업을 유치하고 3차 LH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둘째, 당당한 복지 장성을 실현하겠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역 현실을 감안해 경로당을 공동주거 및 식생활, 치료, 정보소통과 오락기능 등을 두루 갖춘 생활공동체의 장으로 시범 운영하고, 노인복지권을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하겠다. 또 주변에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들을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

셋째,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잘살아야 지역이 발전하는 만큼 친환경 부자 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친환경 인증 바리사건으로 실추된 우리 군의 위상과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농업보조금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림복합단지 유치와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하겠다.

-선거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갈등 해소 및 군민 소통 방안은 있는가.

▲군민간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장성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민선 6기 군정목표를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으로 정한 것도 저를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군민들도 모두 함께 포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선거로 인해 빚어졌던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군민 대통합 기구인 ‘군민통합 소통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이



**유두석 군수 프로필** ▲1950년 장성 출생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국립지리원 지도과장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제35대 장성군수

다. 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군민 모두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고령화로 노인복지가 관심이다. 노인

지급했다. 민선 6기부터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명칭을 변경해 월 4매를 지급할 계획이다.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발소와 미장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평소 공중목욕탕을 잘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르신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곧 관련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해 단계적으로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노인 무상요양시설을 3급 이상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 부여하는 것과 새로운 공중목욕탕 건립을 검토 중이다. 농번기철 도우미 제도와 마을회관 식기세척기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을 쓰고 있다. 주공 임대아파트가 핵심인가.

▲집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꾀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민선 4기 때 456세대의 LH 2차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후

▲시멘트 공장과 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주민건강조사에서 진폐증 등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일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군민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군수로서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시멘트 공장을 인수한 회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승계 이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안평 퇴비공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문제였다.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오래 지속된 집회와 갈등으로 안평리 주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 상황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군이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국적인 힐링명소인 축령산 개발계획은.

### ‘군민통합 소통위원회’ 추진... 선거 갈등 치유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피해 없도록 최선

에는 추가 건립이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 현재 공급량이 부족해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3차 LH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늦어도 2018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자부진한 환경 행복마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분양가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분양활성화 방안은.

▲지난 9일 전남개발공사가 분양가 대폭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지금껏 부진을 면치 못했던 행복마을 분양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 다행이다. 분양가 인하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도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관련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반사회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군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분양가 상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겠다.

아울러 주변 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진폐증 진단에서 확인됐는지 고려시멘트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해결 방안은 있다. 주민들은 고려시멘트를 인수한 회사가 약속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승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다.

▲그동안 군에서는 축령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도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 중이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앞으로 축령산 편백 휴양림을 명상·힐링벨트로 만들어 스쳐가는 장소가 아니라 먹고 즐기고 자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 복안이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계속 구상해 나가겠다.

-선비의 고장에 걸맞게 장성의 청렴 문화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계속 추진 할 생각인가.

▲민선 5기 때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추진해 선비의 고장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거뒀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군의 청렴도가 2012년과 2013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민선 6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 교육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의 청렴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칠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